

【자료비평】

1880년의 일본참모본부의 『皇朝兵史』 비판
- 고대한일관계를 중심으로 -

최재석*

1. 皇朝兵史가
2. (大和倭)
3. ()
4. ()

머리말

관견(管見)에 의하면 고대한일관계사에 관한 최초의 저서는 1848년(嘉永 원년)의 반노부토모(伴信友)의 『중외經緯傳草稿』(中外經緯傳草稿)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저서는 『황조병사』(皇朝兵史)에 비하면 그 저서명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체계성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그 저서에 대한 고찰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황조병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황조병사』는 1880년에 일본 참모본부(參謀本部)가 간행한 저서인데 전쟁과 전투에 대하여 서술한 역사서이다. 이 참모본부는 표면적으로

*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는 일본육군의 통수기관이며 내각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국방과 용병(用兵)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1882년 비밀리에 중국에 파견되어 간첩활동을 하고 1883년에 돌아온 일본육군 대위 사코 가게노부(酒匂景信)가 일본육군의 참모본부가 파견한 간첩이라는 사실¹⁾을 알고 있다. 또 그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드디어 강점당한 사실이나 고대로부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또한 서삼한(西三韓)인 한국을 정벌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과업이라고 한 『황조병사』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침략 기획에 적어도 참모본부가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 참모본부가 펴낸 『황조병사』 가운데서 고대한일 관계사 부문에 주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皇朝兵史』가 인용한 역사서에 대하여

『황조병사』는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마다 인용한 역사서를 적고 있다. 그러나 각 권마다 인용된 저서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황조병사』가 인용한 저서는 모두 48종에 달하는데 권마다 인용한 저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권 1	-	13종
권 2	-	7종
권 3	-	7종
권 4	-	1종
권 5	-	5종
권 6	-	6종
권 7	-	9종
전체	-	48종

1) 최재석, 『통일신라 · 발해와 일본의 관계』, 1993, p 498.

지금 『황조병사』가 인용한 48종의 역사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황조병사』 卷 1 引用書	1 日本書紀 ²⁾ / 2 古事記 / 3 舊事記 / 4 延喜式 / 5 和各抄 / 6 姓氏錄 / 7 釋日本記 / 8 古事記傳 / 9 日本書記通證 / 10 大日本史 / 11 豊後鳳土記 / 12 肥後鳳土記 / 13 古記拾遺
『황조병사』 卷 2 引用書	1 熟田社錫記 / 2 史徵 / 3 續日本後記 / 4 本朝文粹 / 5 万葉集 / 6 百濟記 / 7 筑前鳳土記
『황조병사』 卷 3 引用書	1 水鏡 / 2 公卿補任 / 3 三國史記 / 4 東國通鑑 / 5 紀氏系圖 / 6 尊卑分脉 / 7 聖德太子傳曆
『황조병사』 卷 4 引用書	1 隋書百濟傳
『황조병사』 卷 5 引用書	1 唐書 / 2 扶桑略記 / 3 小右記 / 4 北山抄 / 5 西宮記
『황조병사』 卷 6 引用書	1 續日本記 / 2 日本後記 / 4 三代實錄 5 日本記略 / 6 奥羽觀蹟聞老誌
『황조병사』 卷 7 引用書	1 數聚國史 / 2 日本後記殘編 / 3 保則傳 / 4 宇治拾遺 / 5 勢陽雜記 / 6 廟陵記 / 7 松浦社本緣記 / 8 今昔物語 / 9 鳳凰紹運錄

2. 고구려와 야마도왜(大和倭)의 관계 서술 비판

고대한일관계를 편의상 고구려와 일본(야마도왜), 백제와 일본, 신라와 일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삼국의 관계 가운데 신라와 일본에 관한 서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백제와 일본의 관계에 관한

2) 『황조병사』는 『日本書紀』나 『古事記』의 紀를 紀로 표현하지 않고 모두 記로 표현하고 있다.

것이 눈에 띈다.

먼저 고구려와 일본의 관계에 관한 서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황조병사』는 고구려와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한반도내의 관계인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475년과 548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도 나온다. 즉 A①, A②는 『삼국사기』의 기사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백제왕이 신라와 미마나(任那)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였다는 A③의 기사는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인 고구려와 일본의 관계서술을 살펴보자.

야마도왜(大和倭)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쳤다(伐) 라는 B②의 기사는 사실일 수 없다. 더욱이 야마도왜 군대가 고구려 왕궁에 쳐들어와서 많은 귀중품을 노획하였다거나 고구려가 또한 여러 가지 보화를 왜군에 헌상하였다거나 또는 고구려왕이 왜의 군대가 두려워 도망갔다 라는 기사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국가형태도 갖추지 못한 당시의 야마도왜의 정치적 상황은 접어두고라도, 야마도왜의 유치한 조선·항해수준의 시각에서도 한반도 공격은 고사하고 한반도에 건너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³⁾ 왜의 장군이 고구려로 쳐들어가기 전에 고구려왕이 도주하고 고구려왕궁에서 노획품으로 많은 보물을 가져왔다는 B②의 기사는 유치원 수준 아동 정도의 조작기사이다. 고구려사인과 백제사인이 동시에 일본에 왔다는 B①도 현실성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① 雄略 19년(475, 장수왕 63), 고구려왕 臣璉이 백제를 공격한지 7 晝夜 만에 加須利君을 생포하여 살해하였다. (권 3)⁴⁾

3) 『日本書紀』 齊明 3년, 欽明 11년 9월 조.

『續日本紀』 天平宝字 6년 4월 17일.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 A② 欽明 9년(548, 양원왕 4) 正월,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 馬津城(百濟)을 포위하였다. 백제의 사인 前部德率 眞慕宣文 등이 하직하여 귀국하였다. (권 4)
- A③ 欽明 12년(551, 성왕 29), 백제왕이 신라·미마나의 군대를 모아 고구려를 쳐서 한성(위례성)의 땅을 얻었다. (권 4)
- B① 繼體 10년(516, 문자왕 25) 9월 14일, 백제사인과 고구려사인이 함께 왔다. (권 4)
- B② 欽明 23년 (562, 평원왕 4) 8월, 대장군 大伴狹手彦을 보내 군사 數萬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쳤다. 狹手彦이 백제의 계략을 사용하여 공격하여 고구려를 파하였다. 고구려왕은 울타리를 넘어 도망하였다. 狹手彦이 승리하여 고구려 왕궁에 들어가 7 織帳을 노획하여 돌아와 천황께 헌상하였다. 갑옷 2부, 금장식 칼 2구, 銅纒 纒 3구, 色幡 2竿, 笑女媛도 헌상하였다. 또 從女 吾田子를 蘇我稻目에 보내 鐵屋의 長安寺에 두었다. (권 4)

3. 백제와 야마도왜(일본)의 관계 서술 비판

1) 전설시대와 5세기의 백제와 야마도왜(일본)의 관계

A.D. 400년경 이전 시대를 일단 전설시대로 호칭하기로 한다. 『일본서기』 오진(應神) 14년(403), 15년(404), 16년(405) 조에는 다수의 백제인이 집단적으로 야마도왜로 이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A.D. 400년 전후기에 백제로부터의 대규모의 집단이주민이 야마도왜에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한 것이다. 당시의 일본열도의 원주민은 남녀 모두 문신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으며 문자도 없는 극히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⁵⁾ 이렇게 볼 때 야마도왜의 시작은 백제로부터의 대규모 집단이주민이 정착한 A.D. 400년 전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따라서 A.D. 400년경 이전 시대는 역사성

4) 『황조병사』의 기사의 위치는 편의상 본문에 권 1, 권 2 등으로 표시할 것이다.

5) 『三國志』倭人傳; 『晉書』倭人傳; 『北書』倭人傳.

이 없는 조작된 시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은 A.D. 400년 경 이전 시대를 일단 『전설시대』로 명명하고자 한다.

『황조병사』는 백제와 야마토왜의 관계에 관하여 전설시대에 1 사례, 5세기에 3 사례, 도합 4 사례 정도 언급하고 있다. 지금 그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C① 神功攝政 47년(A.D. 247) 4월, 백제왕이 久氐·彌州流·莫古의 3인으로 하여금 조공케 하였다. 신라의 調使도 같이 왔다. (권 2)
- C② 雄略 19년(475, 문주왕 1), 천황이 백제가 패한 것을 듣고 久麻那利의 땅을 汶州王에게 下賜하였다. (중략) 지금의 부흥은 실로 日本天皇의 再造에 힘입었다. (권 3)
- C③ 雄略 23년(479, 동성왕 1) 4월, 백제왕 文斤이 졸하였다. 天皇이 이것을 듣고 郡君의 둘째 아들 末多가 어리다 하더라도 총명하고 지혜로우므로 이를 세워 백제왕으로 삼았다. 짐(朕)이 그 머리를 쓰다듬었다. (중략) 筑紫의 병사 500인으로 호송하여 동성왕으로 삼았다. (권 3)
- C④ 雄略 23년(479, 동성왕 1), 이 해 백제의 貢賦가 평년의 것의 두 배였다.

C①은 전설시대의 기사이며 또한 그 기사도 백제왕과 신라왕이 함께 야마토왜(일본)에 조공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대설정도 허구이고 그 내용도 허구임을 알 수 있다. C②는 야마토왜의 왕이 백제왕에게 구마나리(熊津)라는 땅을 하사하였다는 기사로 이 또한 허구의 기사이다. 마치 나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또 다른 아이에게 내어 준다는 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은 『일본서기』의 것과 동일하다.⁶⁾ 백제의 문주왕(汶州王)이 왕도를 웅진(熊津)으로 천도한 것을 일본사서는 야마토왜왕이 백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C③는 『일본서기』의 雄略 23년 4월 조의 기사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양자가 흡사하다. 479년에 삼근왕(三斤王)이 죽고 동성왕(東城王)이 즉위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사를 일본 왜

6) 『일본서기』 雄略 21년 3월.

왕이 동성왕을 백제의 왕으로 임명하였다고 조작한 것이다. C④는 백제가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기사이다. 한국의 백제, 고구려, 신라 가운데 두 나라 또는 세 나라가 동시에 일본에 조공을 하였다는 기사나 또는 일본왕이 백제의 땅을 백제왕에게 하사하였다는 식의 역사서술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동이 쓴 동화라면 몰라도 적어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이러한 역사는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황조병사』의 역사왜곡은 아주 유치한 수준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 C① ~ C④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백제·신라가 동시에 일본에 조공
- (B) 일본왕이 백제왕에게 땅(久麻那利)을 하사
- (C) 일본왕이 백제의 동성왕을 임명
- (D) 백제가 일본에 조공

2) 6세기의 백제와 아마다왜의 관계

먼저 6세기의 백제와 아마다왜 관계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D① 繼體 3년(509, 무령왕 9) 2월, 使人을 백제에 파견하여 백제의 人民이 도망가서 미마나(任那)의 日本縣邑에 있는 자들을 모아서 이들을 백제로 돌려보냈다. (권 4)
- D② 繼體 6년(512, 무령왕 12) 4월 6일, 穗積押山을 백제에 파견하여 筑紫의 말 40필을 하사하였다. (권 4)
- D③ 繼體 6년(512, 무령왕 12) 10월, 백제가 조공하였다. (권 4)
- D④ 繼體 7년(513, 무령왕 13) 6월, 백제의 姐嬭文貴 장군, 洲利野爾 장군이 穗積押山을 따라 入朝하였다. (권 4)
- D⑤ 繼體 7년(513, 무령왕 13) 11월 1일, 백제의 姐嬭文貴, 斯羅(신라)의 汶得至, 安羅의 辛巴奚, 貴巴委佐, 伴跛의 旣殿奚, 竹汶至 등을 불러 타 이르고 巴汶滯沙를 백제에 判賜하였다. (권 4)
- D⑥ 繼體 9년(515, 무령왕 15), 文貴 등이 물러가서 돌아갈 것을 청하여 淸황은 物部連으로 하여금 호송케 하였다. (권 4)

- D⑦ 繼體 10년(516, 무령왕 16) 9월, 백제 州利即次장군이 物部를 따라 入朝하였는데 已汶의 땅을 받은 것을 감사하였다. (권 4)
- D⑧ 繼體 23년(529, 성왕 7), 백제왕이 哆唎國守 穗積押山에게 말하기를 朝貢의 使人이 언제나 嶋崎를 피하여 풍파에 고생하였다고 한다. (하략) (권 4)
- D⑨ 欽明 7년(546, 성왕 24) 正月 1일, 백제의 使者 中部奈率 己連 등이 돌아 갔으며 (이때) 良馬 70필 배 10척을 賜하였다. (권 4)
- D⑩ 欽明 7년(546, 성왕 24) 6월 1일, 백제의 中部奈率 掠葉禮 등으로 하여금 貢調케 하였다. (권 4)
- D⑪ 欽明 8년(547, 성왕 25) 4월, 백제 前部德率 眞慕宣文, 奈率 欺麻 등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권 4)
- D⑫ 欽明 9년(548, 성왕 26) 10월, 370인을 백제에 보내 得爾辛에 성을 쌓는 것을 도왔다. (권 4)
- D⑬ 欽明 10년(549, 성왕 27) 6월 1일, 백제 將德 文貴, 固德 馬次文이 귀국하였다. (권 4)
- D⑭ 欽明 11년(550, 성왕 28) 2월 1일, 使人을 백제에 파견하여 고구려의 軍事를 문의케 하였다. 천황이 지시하여 말하기를 본인(朕)이 듣기로 북쪽의 적(고구려)이 강폭(強暴)하니 활 30구(具)를 하사한다. (중략) 만약에 국가가 무사하고 오랫동안 日本의 官家가 되어서 朕을 섬기기를 원하면 나솔(奈率) 馬武를 大使로 임명하여 入朝케 하라 (중략) 고 하였다. 백제왕이 고구려 포로 6口와 별도로 中部奈率 皮久斤 등으로 하여금 고구려 포로 10口를 헌상하였다. (권 4)
- D⑮ 欽明 13년(552, 성왕 30) 10월, 백제가 사인을 파견하여 석가불동상 1구 및 불경을 獻하였다. (권 3)
- D⑯ 欽明 14년(553, 성왕 31) 正月 12일, 백제 上部德率 科野次酒 등으로 하여금 구원(병)을 청하였다. (중략) 6월 6일, 內臣을 백제에 파견하여 良馬 2필, 배 2척, 활 50張, 화살 50具를 보냈다. (권 4)
- D⑰ 欽明 15년(554, 위덕왕 1) 7월, 백제 下部干率將軍 三貴, 上部奈率 物部鳥 등으로 하여금 군대를 청하였다. (권 4)
- D⑱ 欽明 15년(554, 위덕왕 1) 正月 9일, (전략) 금년의 전쟁은 전년에 비하면 대단히 위험하므로 出師의 시기를 어기지 않도록 하라. 內臣 佐伯連이 칙을 받들어 兵 1000인, 馬 100필, 배 40척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 (권 4)
- D⑲ 欽明 15년(554, 위덕왕 1) 5월 3일, 內臣이 수군(舟師)을 거느리고 백제

- 를 구원하였다. (권 4)
- D⑳ 欽明 16년(555, 위덕왕 2) 2월, 백제왕자 餘昌의 아우 惠를 파견하여 來朝하였다. 天皇이 明이 전사한 것을 듣고 대단히 슬퍼하고 특히 사인을 보내 惠를 津頭에서 영접하고 위로하였다. (권 4)
- D㉑ 欽明 17년(556, 위덕왕 3) 正月, 惠(聖王의 子)가 돌아가다. 병기와 좋은 말(馬)을 주어 보냈다. 惠의 종자에게도 모두 선물을 하였다. (권 4)
- D㉒ 敏達 4년(575, 위덕왕 22) 2월 4일, 백제가 조공하여 調를 올렸는데 이전보다 많았다. (권 5)
- D㉓ 敏達 4년(575, 위덕왕 22) 4월 1일, 吉子皇子를 신라로, 吉子木蓮子를 미마나로, 吉士譯語彦을 백제로 파견하였다. (권 5)
- D㉔ 敏達 12년(583, 위덕왕 30) 7월 1일, 詔하기를 (중략) 火·葦北의 國造 阿利斯登의 아들 達率日羅는 지금 백제에 있는데 현명하고 용기가 있어 朕이 그 사람을 얻어 함께 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중략) 국정의 요를 질문하였는데 日羅는 그 요체를 설명하였다. (하략) (권 5)
- D㉕ 大化 2년(646, 선덕왕 15·보장왕 5·의자왕 6) 2월 23일, 삼한·미마나가 조공하였다. (권 5)

위의 기사 D①~D㉕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황조병사)

내용	해당기사
일본사인 백제파견	D① D② D⑭
백제조공	D③ D⑧ D⑩ D㉒
백제왕이 장군·사인·왕자 등을 일본에 파견	D④ D⑦ D⑪ D⑮ D⑯ D⑰ D㉑
백제·신라·安羅·伴跋 대표를 호출하고 땅을 백제에 준다.	D⑤
백제대표 귀국 호송	D⑥
일본, 인부를 백제에 파견하고 성벽 구축	D⑫
백제사인·백제왕자 귀국	D⑨ D⑬ D㉑
백제에 군수물자 지원결정	D⑱
백제에 수군 파견	D⑲

동시에 신라·미마나·백제에 사인 파견	D②③
일본왕 백제관리에게 국정 질문	D②④
삼한·미마나 동시 조공	D⑤
요메이(用明)천황은 蘇我氏 자손	D⑥

위의 <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일본이 백제·신라·安羅·倭跋 등의 네 나라의 대표를 동시에 호출하였다는 D⑤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D③, D⑧, D⑩, D⑫의 기사는 조작기사이다.
- (2) 표현이 불확실한 『三韓』과 미마나(任那)가 동시에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D⑤도 조작임이 분명하다. 모두 유치하고 서투른 조작이라 할 수 있겠다. 646년(大化 2년)에는 三韓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조공하지는 않았다.
- (3) 백제 인민을 돌려보냈다는 D①, 말(馬) 40필을 백제로 보내기 위하여 일본인을 백제에 파견하였다는 D②, 활 30구를 백제에 보내기 위하여 일본사인을 임명하였다는 D④의 기사 등은 윤색은 되었지만 내용은 사실이다. 또 D④에는 백제왕이 일본이 지명한 백제관리 마무(馬武)를 大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작이다.⁷⁾ 이 기사 후미에 있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잡은 고구려 포로 기사는 백제가 아마도왜를 경영한 6세기의 백제와 아마도왜의 관계⁸⁾를 알게 되면 곧 이해되는 기사일 것이다.

7) 『일본서기』는 欽明 5년 2월조에는 백제의 施德 馬武가 미마나의 使人으로서 日本府와 미마나의 牟岐 등과 이야기하였으며 同 11년 2월 10조에는 奈率 馬武가 일본왕의 신하이므로 일본천황을 섬기려면 馬武를 大使로 파견하라고 되어 있다. 施德은 백제관위 제 8위의 낮은 계급이고 奈率은 제 6의 관위이다.

8) 최재석, 『6세기의 백제에 의한 大和倭경영과 法隆寺夢殿의 관음상』, 『한국학보』 109, 2002.

- (4) 사료 D 가운데 백제왕이 백제왕자·백제장군·백제사인 등을 일본에 파견한 기사가 제일 많아 7 사례에 이른다. 이들은 아마도왜 경영 차 파견된 백제의 왕자와 관리들이다.⁹⁾
- (5) 백제사인의 본국(백제) 귀국을 호송하였다는 D⑥, 370인이나 되는 인부를 백제에 보내 성벽을 구축케 한 D⑫, 백제사인이나 백제왕자가 일본에서 귀국하였다는 D⑨, D⑬, D⑰, 백제에 대한 군수물자지원을 결정하였다는 D⑱, 백제에 수군을 파견하였다는 D⑲ 등은 기사내용이 윤색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모두 사실을 반영한 기사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이 백제관리 達率(백제 16관위 중 제 2의 관위) 日羅에게 국정자문을 받았다는 D⑳ 는 백제왕이 파견한 백제관리가 일본(아마도왜)을 경영한 사실¹⁰⁾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 (6) 위에 열거한 조작기사에도 불구하고 『황조병사』는 『일본서기』처럼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즉 아마도왜는 여러 번 백제에 여러 종류의 물품과 인력을 제공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은 D②, D⑨, D⑪, D⑬, D⑮, D⑰, D㉑에 담겨 있다.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조병사』는 백제가 일본에서 인력을 징집하거나 물품을 징발한 것을 賜, 遣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물품이 다양하고 그 수량이 막대하다는 시각에서도 賜나 遣의 표현은 왜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각 각 백제왕이 징집하고 징발한 인력과 물품들이다. 즉 백제는 아마도왜에서 양마(良馬), 배(船), 활, 화살, 병기 등을 징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부와 병사 까지도 징집하였다. 백제 성왕 26년(548)에는 인부 370인을 징집하여 백제의 득이신(得爾辛)의 성벽을 축조케 하였다. 554년(성왕 32)은 백제가 신라와도 전쟁을

9) 주 8) 참조.

10) 주 8) 참조.

하고 고구려와도 전쟁을 하던 해이다. 이 해에 백제는 무려 1000명이라는 병사를 야마도왜에서 징집하여 전쟁에 투입하였다. 말의 경우는 이 해에 100필 이라는 많은 수의 말을 징발하여 그 전쟁에 사용하였다. 이밖에 또 백제는 일본에서 막대한 양의 보리 종자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일본서기』 欽明 12년(551, 성왕 29) 2월 조에는 백제가 보리 종자 1000석을 야마도왜에서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인력과 각종 물품을 징집하고 징발한 백제의 왕은 무령왕·성왕·위덕왕의 3대의 왕들이었다. 무령왕·성왕·위덕왕 3대 왕의 일본경영에 대하여는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므로¹¹⁾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표 2> 백제가 일본(야마도왜)에서 징집한 인력과 징수한 물품

	말 (良馬)	배	인부	활	화살	병기	병사	황조병사 표현
512(繼體 6, 무령왕 12)	40필							賜
546(欽明 7, 성왕 24)		10척						賜
548(欽明 9, 성왕 26)			370인					遣
550(欽明 11, 성왕 28)					30具			賜
553(欽明 14, 성왕 31)	2	2		50張	50具			賜
554(欽明 15, 성왕 32)	100	40					1000	遣함을 許함
556(欽明 17, 위덕왕 3)	○					○		賜하고 遣함

(7) 여기서는 특히 D²⁶ 기사에 주목한다. 이 기사는 일본천황 用明(586~587)은 蘇我氏의 子孫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蘇我氏는 처음에는 백제왕이 파견한 백제사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642년 경 부터는 백제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

11) 주 8) 참조.

본왕 행세를 하다가 645년 마침내 백제왕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된다.¹²⁾ 그런데 蘇我氏를 주살한 하수인이 백제인이고 蘇我氏가 백제왕의 명령에 의하여 야마도왜(일본)를 통치하였다면¹³⁾ 蘇我氏 자신도 백제인일 수밖에 없다.

3) 7세기의 백제와 야마도왜의 관계

7세기의 백제와 야마도왜의 관계를 다룬 기사는 다음 3 사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E① 孝德大化元年(645) 7월 10일, 고구려·백제·신라가 조공하였다. (권 5)
- E② 白雉 2년(651) 6월, 백제·신라가 조공하였다. (권 5)
- E③ 天智元年(662) 6월 28일, 백제가 달솔 万智 등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권 5)

『황조병사』는 645년에는 고구려·백제·신라 3국이 일본에 조공하였으며(E①) 651년에는 백제·신라 두 나라가 조공하였다(E②)고 기록하고 있다. 662년에 백제가 조공하였다는 E③은 『일본서기』의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E①, E②, E③ 모두 조작된 기사이다.

4. 신라와 야마도왜(일본)의 관계 서술 비판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편의상 전설시대의 관계, 5세기의 관계, 6세기의 관계, 7세기의 관계 그리고 8세기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12) 최재석, 백제 의자왕에 의한 蘇我入鹿 부자 주살과 “大化改新”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사. 동, 『고대 한일관계와 일본서기』, 2001 참조.

13) 주 12) 참조.

1) 전설시대의 신리와 일본의 관계 서술

먼저 『황조병사』에서 이에 관한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F① 垂仁(B.C. 29~A.D. 90)때에 신라왕자 天日槍이 歸化하였다. (권 1)
- F② 景行 8년(A.D. 78), 보물의 나라가 있었는데 많은 금·은을 생산하였다. 栲念新羅國이라 하였다. (중략) 新羅國 스스로 복속하였다. (권 1)
- F③ 仲哀 9년(A.D. 200) 10월 3일, 드디어 和珙津을 출발하였다. 큰 고기가 배를 부축하고 바람은 順風(順風)으로 배를 빠르게 하여 노를 저을 노고를 하지 않고도 곧 신라 땅에 다다랐다. 바닷물이 가득 차서 신라국 안까지 미쳤다. 신라왕 波沙寐錦은 전전궁궁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국민에게 말하기를 신라국을 건국한 이래로 이와 같은 이변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하늘이 나라를 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군대가 바다를 가득 채웠고 깃발은 태양에 빛나고 북소리는 하늘을 진동시켰다. 신라왕은 이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복종하였다. 이미 깨닫고 말하기를 내 듣기에 동방에 神의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라 하였으며 또한 聖王이 있는데 천황이라 칭한다. 이 필시 그 나라 일본의 神兵일 것이다. 어찌 거역하겠는가. 그래서 도지지도와 호적서류를 바치고 스스로 포박되어 백기를 들고 와서 항복하여 머리 숙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부터 영원히 馬夫가 되어 봄·가을에 말빛과 말채찍을 헌상하여 매년 男女의 조(調)를 진상하겠다』고 즉 맹세하여 말하기를 동쪽의 해가 서쪽에 들고 또한 阿利那禮강이 역류하고 江의 돌이 솟아 별이 되는 경우를 빼고는 봄·가을의 아침 알현을 결하고 말의 빛과 채찍의 진상을 중지하면 천신·지신이 꾸짖을 것이다. 신라 백성 모두 신라왕을 죽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황후가 말하기를 살인은 상스럽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 신라왕의 포박을 풀고 마부(복속자)로 하였다. 진군하여 신라 왕도에 이르러 보물 창고를 봉하고 각종 서류를 거두고 장모(杖矛)를 신라왕의 문에 세워 후세의 표식으로 하였다. 신라왕 波珍千岐微叱己知를 質로 삼았는데 신라왕은 金·銀·彩色견직물·평직견 등을 80척의 배에 싣고 바쳤다. 이것이 이후 80척의 조공의 제도가 되었다. 고구려·백제 두 나라는 신라가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밀히 사람을 시켜 그것을 염탐케 하였다. 일본에 거역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금후 영원히 西蕃이라고 칭하고 조공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명하여 內屯官家로 정하였다. (권 2)

- F④ 神功攝政 5년(A.D. 205) 3월 7일, 신라가 汗禮斯伐, 毛麻利叱智, 富羅母智를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권 2)
- F⑤ 神功攝政 49년(A.D. 249) 3월, 荒田別,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고 신라를 쳤다. (중략) 드디어 比自鉢·南加羅·安羅·多羅·卓淳·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 兵을 옮겨 서쪽의 方古奚津에 이르러 南蠻枕彌多禮를 함락시키고 그 땅을 백제에게 하사하였다. (하략) (권 2)
- F⑥ 神功攝政 62년(A.D. 262), 신라가 조공을 하지 않았다. 囊津彦師를 보내 신라를 쳤다. (권 2)
- F⑦ 應神 14년(A.D. 283), 진시황의 자손 弓月君이 백제에 와서 말씀 올리기를 臣의 나라 사람을 거느리고 귀화하려고 하였으나 신라가 거부하여 加羅에 체류하였다. 그래서 囊津彦을 加羅에 파견하여 이를 불러들였다. 신라는 囊津彦을 붙들어 3년 동안 돌려보내지 않았다. (권 2)
- F⑧ 應神 47년(A.D. 316) 여름, 百濟·新羅가 入貢하였다. (권 2)
- F⑨ 仁德 53년(A.D. 365), 신라가 조공을 하지 않았다. 5월에 竹葉瀨를 파견하여 그 책임을 책망하였다. (중략) 신라군이 크게 궤멸하였으며 승리에 편승하여 쳤으므로 (신라의) 사상자는 백·천명에 이르고 드디어 4邑의 인민을 포로로 잡고 귀환하였다. (권 2)

위의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신라왕자 일본에 귀화 | 1 사례 |
| ② 신라 복속 내지 항복 | 2 사례 |
| ③ 신라 조공 | 1 사례 |
| ④ 신라·백제 두 나라 동시 조공 | 1 사례 |
| ⑤ 신라 정벌 | 3 사례 |
| ⑥ 중국 진시황 자손 일본 귀화를 신라가 방해 | 1 사례 |

이상을 살펴보면 모두 동화 같은 내용들이어서 비판을 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F③의 경우는 서술이 길기 때문에 약간 부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일본이 신라정벌을 위해 바다에 배를 띄웠을 때 순풍이 불어 노를 젓지 않고도 신라에 도착하였을 뿐만 아

나라 바닷물이 가득 차서 신라국 안 까지 밀려들어와 일본의 신라정벌을 도왔으며 이를 본 신라왕은 겁을 먹고 스스로 포박되어 항복하여 영원히 일본의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함과 동시에 금·은·비단 등 수많은 양의 보물을 진상하였는데 이를 본 고구려·백제도 항복하여 역시 앞으로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어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이러한 기사는 『일본서기』 神功皇后의 기사와 유사하다.¹⁴⁾ 그러나 오진(應神) 47년이라는 기년(F⑧)은 『일본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5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서술

『황조병사』에서 5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 관한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G① 雄略 8년(404, 자비왕 7), 신라가 조공을 하지 않은지 8년이 되었다.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워 고구려와 수교하였다. (권 3)
- G② 雄略 9년(465, 자비왕 8) 3월, 小弓 등이 진격하여 신라에 이르러 行近郡을 무찔렀다. 신라왕이 밤에 북소리를 듣고 官軍(日本軍)이 모두 曠地를 점령한 것을 알고 수백의 기마를 이끌고 도주하였다. 小弓이 추격하여 그 장수를 베었다. (권 3)
- G③ 雄略 9년(465, 자비왕 8) 3월, 천황이 친히 신라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神의 가르침이 있어 이를 중지하였다. (권 3)
- G④ 雄略 23년(479, 소지왕 1) 8월, 천황이 붕할 때 征新羅將軍吉備尾代가 신라정벌의 명을 받아 蝦夷 500명을 거느리고 吉備國에 이르렀다. 蝦夷가 서로 말하기를 天皇이 붕하였다. 이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서로 거느리고 이웃 郡을 侵掠하였다. 尾代와 娑婆水門에서 싸웠다.(周防國佐波郡에 있다) 蝦夷 靺鞨(靺鞨)이 잘 엮드리고 뛰어 화살을 피하였다. 尾代는 활을 가지고 空弦을 彈射하여 二隊를 넘어뜨렸다. (중략) 尾代가 몇 사람을 베고 추격하여 丹波浦掛水門에 이르러 쳐서 이를 섬멸하였다. 생각컨대 征新羅將軍의 호칭은 여기서 시작된다. (권 3)

14) 『일본서기』 神功皇后 섭정전기 冬 10월 3일조.

G①은 신라가 일본의 신라침공이 두려워 고구려와 수교를 맺었다는 기사이고, G②는 일본이 신라 땅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신라왕이 도주하였다는 기사이고, G③은 일본왕이 신라정벌계획을 세웠다가 중지하였다는 기사이고, 마지막으로 G④는 일본의 신라정벌장군에 관하여 서술한 기사이다. 그러나 이 G④는 중대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신라정벌장군이 신라정벌의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신라로 가지 않고 周防國(현재의 山口縣)과 丹波浦에서 전쟁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니 일본의 신라정벌장군은 한반도의 신라로 가지 않고 일본열도 내에 있는 신라에서 전쟁을 한 것이 된다. 기사에 혼란이 있으나 일본 열도의 모든 지명이 新羅·百濟·高句麗·伽倻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¹⁵⁾ 15)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고 하겠다.

3) 6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서술

6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서술한 기사는 모두 13 사례에 이른다. 먼저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H① 繼體 21년(527, 법흥왕 14) 6월 1일, 近江毛野를 파견하여 兵 6만을 거느리고 신라를 쳤다. (중략) 海路를 눌러 고구려·백제·신라·미마나의 조공선을 유치하였다. (권 4)
- H② 繼體 23년(529, 법흥왕 16) 4월 7일, (전략) 신라·백제의 두 나라 왕을 불렀다. (권 4)
- H③ 欽明 21년(560, 진흥왕 21) 9월, 신라, 於至己·知奈末을 보내 貢獻하였다. 대접하고 선물한 것(饗賜)이 평상보다 많았다. (권 4)
- H④ 欽明 22년(561, 진흥왕 22), 신라, 久禮叱 및 伐干을 보내 朝貢하였다. (권 4)
- H⑤ 欽明 23년(562, 진흥왕 23) 正月, 신라가 공격하여 任那官家를 멸망케 하였다. (권 4)

15) 최재석, 『백제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1990, pp. 124~132.

- H⑥ 欽明 23년(562, 진흥왕 23) 7월 1일, 신라가 조공하였다. 체류케 하여 돌려보내지 않았다. (권 4)
- H⑦ 欽明 23년(562, 진흥왕 23) 7월, (전략) 唃喇로 나가 副將軍 河邊瓊岳로 하여금 居曾山으로 나가 미마나(任那)를 멸망시킨 죄를 신라에 묻게 하였다. (권 4)
- H⑧ 欽明 23년(562, 진흥왕 23) 11월, 신라가 조공하였다. 신라사인이 일본에 체류하여 귀국하지 않았다. (권 4)
- H⑨ 欽明 32년(571, 진흥왕 32) 3월 5일, 坂田耳子를 신라에 파견하여 미마나(任那) 멸망의 상황을 묻게 하였다. (권 4)
- H⑩ 敏達 4년(575, 진흥왕 36) 6월, 신라의 조공물이 평년보다 많았다. (권 5)
- H⑪ 敏達 9년(580, 진평왕 2) 6월, 신라가 조공하였는데 이를 돌려보냈다.(권 5)
- H⑫ 敏達 11년(582, 진평왕 4) 10월, 신라가 조공하였는데 또 이를 돌려보냈다. (권 5)
- H⑬ 推古 8년(600, 진평왕 22) 2월, (전략) 境部臣을 大將軍으로하고 穗積臣을 副將으로하여 군사 일만(万)여를 거느리고 신라를 쳐서 다섯 城을 함락시켰다. 신라왕이 백기를 들고 官軍(日本軍)의 영내로 왔다. (하략) (권 5)

위의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정리될 것이다.

- ① H①, H⑬은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기사이다.
- ② H②는 일본이 신라·백제의 두 나라 왕을 호출하였다는 기사이다.
- ③ H③, H④, H⑥, H⑧, H⑩, H⑪, H⑫는 신라가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기사로, 전체 13 기사 가운데 7 기사로 다른 어떤 기사보다도 많다. 조공 기사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 ④ H⑤는 신라가 미마나(任那)官家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는 기사이다.
- ⑤ H⑦, H⑨는 일본이 신라가 미마나(任那)를 멸망시킨 것을 책망하였다는 기사이다.

그런데 H⑥의 내용은 『일본서기』의 내용과 상이하다. 즉 『황조병사』는 일본이 일본에 온 신라사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데 대하여 『일본서기』는 신라사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신라로 귀국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4) 7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서술

7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서술한 기사는 6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서술기사에 비하여 아주 적게 나타나 있다. 6세기의 것은 13 사례에 이르나 7세기의 것은 4 사례에 불과하다.

- I① 推古 10년(602, 진평왕 24) 2월 1일, 來日皇子를 將軍으로 하여 군사 2만 5천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치게 하였다. (권 5)
- I② 推古 11년(603, 진평왕 25) 4월 1일, 當麻皇子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신라를 치고 7월 4일에 播摩에 이르렀다. (권 5)
- I③ 推古 31년(623, 진평왕 45), (전략) 小德大宅軍을 副將軍으로 임명하고 신라를 치게 하였다. 해군(舟師) 수만이 바다를 메우고 진군하였다. 두 나라의 使人이 바라보고 경악하여 도망쳐 돌아왔다. (중략) 신라가 크게 겁을 먹고 항복을 청하니 天皇이 여러 장군의 表를 들고 이를 허락하였다. (권 5)
- I④ 齊明 3년(657, 무령왕 4), 使人을 신라에 파견하여 승려 智達·間人連御麿·依網 連稚子 등을 당으로 보내라고 하였으나 신라가 말을 듣지 않아 智達 등이 신라에서 돌아왔다. (권 5)

위의 4 기사 가운데 I①, I②, I③은 일본이 장군을 파견하여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기사이고, I④는 일본이 신라에 부탁하여 일본승려를 신라선편으로 당나라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라가 이를 거절하여 일본승려를 당나라에 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귀국하였다는 기사이다. 4개의 기사 가운데 이 I④만이 사실을 전해주는 기사라고 하겠다. I④는 일본의 조선·향해수준이 매우 유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사이다. 당나라 파견 일본 학문승들이 『신라송사』(新羅送使)의 배를 얻어 타고 일본왕경~신라왕도~당나라를 왕복한 사실¹⁶⁾에 주목한다면 일본 내해(內海)도 신라배로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 『일본서기』 舒明 11년 9월조.

최재석, 『고대한일불교관계사』 1998, pp. 93~113.

5) 8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서술

『황조병사』에 의하여 8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서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J① 天平 7년(735, 성덕왕 34) 2월 17일, 신라가 조공하였다. (권 5)
- J② 天平 8년(736, 성덕왕 35) 2월 28일, 從5位下 阿部繼麻呂를 신라에 파견하였다. (권 5)
- J③ 天平 9년(737, 효성왕 1) 2월 15일, 使人을 파견하였는데 귀국하여 말하기를 신라는 禮를 어기어 使命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5위 이상 및 6위 이하의 官人으로 하여금 이를 논의케 하였다. 諸司 혹은 使人을 파견하여 그 이유를 힐문하거나 혹은 군사를 보내 곧 정벌하기로 하였다. 3월 17일, 大伴三中 등을 신라에 파견하여 힐문케 하였다. 4월 초하루, 使人을 보내 幣를 諸社에 바치고 신라의 무례를 고하였다. (권 5)
- J④ 天平 15년(743, 경덕왕 2) 3월, 筑前國司가 上言하기를 신라사인 薩滄金序貞이 入貢하였다고 한다. 從5位下 多治와 土作을 보내 신라의 調(진상품)을 檢校시켰다. (하략) (권 5)
- J⑤ 天平勝宝 5년(753, 경덕왕 12) 2월 9일, 從5位下 小野田守를 遣新羅大使로 하였다. (하략) (권 5)
- J⑥ 天平宝字 3년(759, 경덕왕 18) 9월 19일, 신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諸國에 지시하여 3년 기한으로 전함 500척을 만들게 하였다. (권 5)
- J⑦ 天平宝字 4년(760, 경덕왕 19) 9월 16일, 신라가 조공하였다. (하략) (권 5)
- J⑧ 天平宝字 5년(761, 경덕왕 20) 正月 9일, 美濃·武藏 두 나라의 소년 각 20명을 뽑아 신라어를 배우게 하였다. 서부(신라) 정벌을 하기 위해서다. (권 5)
- J⑨ 天平宝字 7년(763, 경덕왕 22) 2월 10일, 신라가 조공하였다. (권 5)

신라가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기사는 J①, J④, J⑦, J⑨로 전체 9개 기사 가운데 4 사례에 이르고 일본이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기사는 J⑥, J⑧ 등 두 사례나 된다. 이 가운데 J⑧은 신라를 정벌한 것이 아니라 정벌계획을 세웠다는 기사이다. 일본이 신라에 사인을 파견하였다는 기사는 8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2 사례나 된다. 그리고 J①은

신라가 조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속일본기』는 조공이 아니라 입경(入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 기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 3> 신라와 일본 관계 서술 (皇朝兵史)

내용	전설시대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신라왕자 귀화	1				
신라정벌(계획포함) 내지 신라복속	5	3	2	3	2
고구려·백제 동시 항복	1				
일본의 침공이 두려워 고구려와 수교		1			
신라·백제 두 나라 왕을 호출			1		
신라 조공	1		7		4
신라가 任那官家 멸망케 함			1		
신라 문책			2		
선편편송을 신라가 거절				1	
신라의 무례 논의					1
신라에 사인 파견					2
중국 진시황 자손 일본 귀화 방해	1				

전체적으로 보아 신라를 정벌하였거나 신라를 복속시켰다는 기사(15 사례)와 신라가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기사(12 사례)가 제일 많아 양자의 합계가 27 사례나 된다. 8세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신라가 일본사인에게 무례를 저질렀다는 기사와 일본이 신라에 사인을 파견하였다는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즉 8세기에 이르러서야 조작이 아닌 사실을 반영한 기사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맺는말

앞의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조병사』는 시종 근거의 제시 없이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온 일본(야마도왜)에 의하여 정벌 당하였으며 신라는 5세기에서 7세기까지 단독으로나 또는 백제와 함께 일본에 조공을 하거나 때로는 일본에 의하여 정벌 당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백제도 일본에 대하여 조공을 하는 대신 일본왕은 백제왕에게 응진이라는 백제왕도의 땅을 하사하거나 또는 백제왕(동성왕)을 임명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일본이 한반도로 건너가서 그곳을 정벌하거나 또는 한반도 제국의 여러 왕이 일본왕에 대하여 조공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한반도를 정벌하였다면 의당 일본의 높은 조선·항해수준과 강력한 고대국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항해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신라의 도움 없이는 중국은 물론이려니와 한반도에도 갔다 올 수 없었으며, 일본 호족보다도 약한 유명무실한 일본천황의 왕권, 7세기에도 야마도(大和·奈良), 나니와(難波·大阪)에 국한된 협소한 강역¹⁷⁾ 그리고 일본열도 내의 모든 지역과 장소(마을, 읍, 군 등 각급 취락·다리·사찰·역·목장·산·고개·내(川)·들판·개펄·바닷가(濱)·전포·저수지·갑(岬)·섬·배 타는 곳·항구 등)의 이름이 한국 고대 국가명으로 되어 있었던 점¹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열도에 고대국가는 성립될 수 없으며 또한 성립된 바 없었다.

오히려 나라지방에 자리 잡은 야마도왜는 6세기에는 백제의 무령왕·성왕·위덕왕의 3왕이 통치하여 현재 그 물적 증거마저 존재해 있으며¹⁹⁾ 7세기는 백강구(白江口)의 전투를 도운 왜군이 백제왕 부여풍(夫餘

17)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의 기본시각, 『한국학보』 112, 2003.

18) 최재석, 『백제의 야마도왜와 日本化 과정』, 1990, pp. 124~132.

豊)의 군대였다는 사실²⁰⁾에 의해서도 6~7세기의 일본은 백제가 통치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황조병사』를 접하기 전 20여 년간 30 명 가가이의 일본고대사학자들의 논저를 비판한 글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²¹⁾ 그 때 그들 가운데

-
- 19) 최재석, 6세기의 백제에 의한 야마도왜(大和倭) 경영과 호오류지 유메도노(法隆寺夢殿)의 관음상, 『한국학보』 109, 2002.
 - 20)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서기』, 2001, p. 193.
 - 21) 최재석, 『三國史記』初期記錄은 과연 造作된 것인가: 소위 「文獻考證學」에 의한 『三國史記』批判의 正體, 『韓國學報』 38, 1985.
_____, 末松保和의 新羅上古史論 批判, 『韓國學報』 43, 1986.
_____, 三品彰英의 韓國古代社會·神話論批判, 『民族文化研究』 20, 1987.
_____, 今西龍의 韓國古代史論 批判, 『韓國學報』 46, 1987.
_____, 末松保和의 日本古代史論批判, 『韓國學報』 53, 1988.
_____, 池內宏의 日本上代史論批判, 『人文論集』 33, 1988.
_____, 太田亮의 日本古代史論批判, 『日本學』 8·9合輯, 1989.
_____, 津田左右吉의 日本古代史論 批判, 『民族文化研究』 23, 1989.
_____, 黑板勝美의 日本古代史論批判, 『정신문화연구』 38, 1990.
_____, 坂本太郎外 三人의 『日本書紀』批判, 『韓國傳統文化研究』 6, 1990.
_____, 오늘날의 日本古代史研究批判: 江上波夫外 13人的 日本古代史研究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60, 1990.
_____, 平野邦雄의 日本古代政治過程研究批判, 『日本古代史研究批判』, 1990.
_____, 韓國內 日本研究誌에서의 韓國古代史 서술: 日人の 경우, 『朴成壽教授 華甲紀念論叢』, 1991.
_____, 任那歪曲史 비판: 지난 150년간의 代表的 日本史學者들의 地名歪曲비 정을 中心으로, 『겨레문화』 6, 1992.
_____, 六國史와 日本史學者들의 論理의 虛構性, 『韓國傳統文化研究』 8, 1992.
_____, 鈴木靖民의 統一新羅·渤海와 日本과의 關係史研究 비판, 『정신문화연구』 50, 1993.
_____, 三品彰英의 日本書紀 研究 비판: 『日本書紀 朝鮮關係記事考證』을 中心으로, 『東方學志』 77·78·79合輯, 1993.
_____, 田村圓澄의 古代韓日佛敎關係史연구 비판, 『民族文化』 19, 1996.
_____, 『聖德太子』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사와 일본인 주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韓國學報』 87, 1997.
_____, 鈴木英夫의 고대한일관계사연구 비판, 『百濟研究』 29, 1999.
_____, 鈴木靖民의 古代韓日 關係사 연구비판, 『民族文化』 25, 2002.
_____, 1892년의 하야시 타이호(林泰輔)의 『朝鮮史』 비판: 고대 한일관계사를

역사왜곡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과 그들이 모두 고대한국은 일본(아미노왜)의 식민지라는 등 왜곡된 고대한일관계사를 발표했거나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왜 그들은 한결같이 근거 없이 그러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였지만 그때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황조병사』를 접하면서 그들의 고대사왜곡은 이미 1880년에 일본육군의 참모본부가 펴낸 이 『황조병사』에 연유함을 알게 되었다. 황국(皇國), 황군(皇軍), 황조(皇朝)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황조병사』의 황국사관(皇國史觀)은 국가 간의 관계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인 간의 관계인 신하와 군주의 관계로 환원하여 물건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두 천황에 대한 조공(貢), 물건이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천황으로부터의 하사(賜)로 표현하는 사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1880년의 일본 참모본부의 『황조병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어 왔다. 예를 들어 1873년에 일본은 조선에 도발(征韓)하기로 결정하였으며²²⁾ 또 조선은 明治 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일본 정부 안에서는 일본은 조선을 전장으로 몰아야 한다(조선정복)는 주장까지 하였다.²³⁾ 그러나 1876년에는 실제로 일본이 포함(砲艦) 외교술로 협박하여 조선을 개국시켰으며 그 후 일본은 서울에 강력한 외교관(공사)과 군대를 주둔시켰다.²⁴⁾ 그 후 1905년에는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조선을 반식민지로 삼았으며, 그로부터 5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18, 2003.

_____, 井上秀雄의 古代 韓日 관계사 연구비판, 『民族文化』 26, 2003.

_____,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기본시각, 『한국학보』 112, 2003.

22) J. W. Hall, Japan: From Prehistory to Modern Times(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70); 박영재 역, 『日本史』, 1994, p. 323.

23) 앞의 책, p. 341.

24) 앞의 책, p. 341.

후인 1910년에는 드디어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일본 참모본부의 『황조병사』의 계획대로 조선(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

참고문헌

- 『北史』倭國傳
『晉書』倭人傳
『三國志』倭人傳
『日本書紀』
『續日本紀』
『三國史記』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1990.

_____, 『日本古代史研究批判』, 1990.

_____,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1993.

_____,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1996.

_____, 『古代韓日佛教關係史』, 1998.

_____, 『古代韓國과 日本列島』, 2000.

_____, 『古代韓日關係와 日本書紀』, 2001.

_____, 6세기의 백제에 의한 大和倭 경영과 法隆寺 夢殿의 觀音像: 百濟 武寧王·聖王·威德王 三代의 大和倭 경영 재론, 『韓國學報』 109, 2002.

_____, 古代 韓日관계사 연구의 기본 시각, 『韓國學報』 112, 2003.

_____, 가야와 미마나(任那)는 동일국인가: 가야·미마나 관계 재론, 『신라사학보』 3, 2005.

Hall, J. W., *Japan: From Prehistory to Modern Times*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70); 박영재 역, 『日本史』, 1994